

# 주님의 이름을 부름

## 메시지 2

###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한 역사

성경 구절: 창 4:26, 21:33, 욥 12:4, 신 4:7, 삿 16:28, 시 99:6, 116:13, 80:18, 88:9, 왕상 18:24, 사 12:4, 41:25, 애 3:55-57, 은 1:6, 고전 1:2, 행 9:14, 21, 딤후 2:22

I.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. 이는 오히려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로부터 시작되었다 - 창 4:26.

- A. 셋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, 이것은 ‘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’을 의미한다.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공허한 것과 자신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곧 영원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.
- B. 비록 그들은 공허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,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풍성하고 강하게 되었다. 이것은 그들이 부르던 분의 풍성과 능력 안으로 그들 자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- 롬 10:12-13.

II. 부르는 실행은 욥에 의해 계속되었다 - 욥 12:4, 27:10.

III.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- 창 12:8, 13:4, 21:33.

- A. 창세기 21 장 33 절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(히브리어 *El Olam*)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.
- B. 아브라함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은밀하시고 비밀하신 하나님, 곧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체험하였다.

IV.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- 신 4:7.

V. 삼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- 삿 15:18, 16:28.

VI.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있었다 - 시 99:6, 삼상 12:18.

VII.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- 삼하 22:4, 7, 대상 16:8, 21:26, 시 14:4, 17:6, 18:3, 6, 31:17, 55:16, 86:5, 7, 105:1, 116:4, 13, 17, 118:5, 145:18.

- A. 다윗은 여호와를 불렀고 그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다 - 삼하 22:4.
- B. 다윗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- 시 116:13.
- C.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불렀고,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- 118:5.
- D.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, 곧 진실하게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심을 간증하였다 - 145:18

VIII. 시편기자 아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- 시 80:18.

- A. 시편 80 편 18 절에서 아삽은 “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,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” 라고 기도하였다.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복원되고 부흥될 것이다 - 시 80:18, 롬 8:34, 행 2:33, 21.
- B. 시편 50 편에서 아삽은 그분의 언약에 따라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- 5, 15 절.
  - 1. 언약의 책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들로 예표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- 5 절.
  - 2.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기 위해 이러한 언약에 따라 주님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.

IX. 시편기자 헤만은 그의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- 시 88:9.

X. 엘리야는 여호와를 불렀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불로 응답을 받았다 - 왕상 18:24.

XI. 이사야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- 사 12:4.

- A. 이사야 12 장 4 절은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것을 말한다.
- B.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부르라고 당부했다 - 55:6

XII. 예레미야는 “여호와여,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나이다.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” 라기도하였다 - 애 3:55-56.

- A.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으며 영적인 호흡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- cf. 살전 5:16.
- B.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죄악되고 악하며 더러운 것들을 내쫓고, 모든 긍정적인 것들, 곧 주님의 풍성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마신다 - 찬송가 255 장.
- C. 예레미야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을 불렀을 때 이를 실행했다.
  - 1. 어떤 억압 아래에서 영적인 감옥이나 구덩이에 있을 때마다, 우리는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움을 내쫓고,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구출될 수 있다.
  - 2. 우리가 ‘심히 깊은 구덩이’ 에 있을 때마다, 불평하거나 불만을 나타내서는 안되며, 오히려, 단순히 “오 주 예수여” 하고 불러야 하고, 그럴 때 우리는 삼층천에 있게 될 것이다.

XIII.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 - 욘 1:6, 왕하 5:11.

XIV.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일으키신 이방인도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 - 사 41:25.

XV. 초기의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각처에서 실행했다 - 고전 1:2.

- A. 믿지 않는 이들, 특히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표시가 되었다 - 행 9:14, 21
- B. 스테반이 핍박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실행했고(7:59), 그의 실행은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사울에게 분명히 인상을 주었다(58-60, 22:20).
- C. 이후에, 믿지 않던 사울은 부르는 이들의 부름을 하나의 표시로 삼아 박해하였다(9:14, 21). 사울이 주님께 사로잡힌 직후에 사울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 아나니아는 즉시 그에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도록 했고, 이로써 그 또한 그러한 부르는 자가 되었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었다.
- D. 바울은 디모데후서 2 장 22 절에서 디모데에게 한 말을 통하여, 초기에 모든 주님을 추구하던 이들이 그러한 부름을 실행했던 것을 보여주었다.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는데, 왜냐하면 자신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행하여 그가 누렸던 것 같이 주님을 누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.
- E.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주요한 실행의 하나로,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한다 - 롬 10:10-13.

XVI.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(시 50:15, 렘 29:12), 또한 갈망이다(시 91:15, 습 3:9, 숙 13:9).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에서 기쁘게 마시는 길이고(사 12:3-4),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, 즉 그분을 누리는 누릴만한 길(욘 27:10)이다.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그분을 불러야 한다. (시 88:9)